

2023. 11. 2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

총무과장	조영창	2133-5605
------	-----	-----------

시설관리팀장	소영수	2133-5646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누리집	https://www.seoul.go.kr
-----	---

서울시, '신종 재난' 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...훈련 실시

- 서울시, 11.1.(수) 서울시청 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
-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질식소화포,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설치 완료
-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진압 훈련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점검

서울시는 2023년 11월 1일(수) 14:00~14:20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서울시는 앞서 8월 17일(목) 소방기술사 2명, 건축사 1명을 초빙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, 전기차 화재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 및 설치,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배출 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.

-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9월, 이동식 소화수조(1개), 질식 소화포(1개), 차량하부 직수장치(1개),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(6개) 등을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였고,
-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시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환기팬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.

- 이번 훈련은 서울 중부소방서의 협조하에 서울시청 본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,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통보 및 대피훈련과 전기자동차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소화 훈련으로 구성되었다.
 - 화재가 발생하자 서울시청 관계자와 소방관이 신속하게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여 시민들을 대피장소로 안내하고, 화재 발생 전기차 하부에 주수 장치로 초기 소화를 하는 동시에 질식소화포 및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실시되었다.

- 아울러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인명 안전, 주차장 내의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추가 조치를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도 밝혔다.
 - 전기차 화재의 신속한 감지를 위한 열화상(적외선) CCTV 설치
 - 본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외부 출입문을 방화유리문으로 보완
 -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변경

-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“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 현장사진

